



学校代码: 10184

分 类 号:

文学 硕士学位 论文

三毛와 전해린 노마디즘의 동질성 연구

COMMON STUDY OF SAN MAO
AND JEON HYE RIN'S NOMADISM

金 美 兰

比较文学与世界文学

延 边 大 学



学校代码: 10184

分 类 号:

문학 석사학위 논문

三毛와 전해린 노마디즘의 동질성 연구

COMMON STUDY OF SAN MAO
AND JEON HYE RIN'S NOMADISM

金 美 兰

比较文学与世界文学

延 边 大 学

2
0
1
8

文学硕士学位论文

三毛와

전혜린노마디즘의

동질성

연구

金美兰

分类号

密级

UDC

学号 2153609068

延边大学硕士（硕士）学位论文

三毛와 전해린 노마디즘의 동질성 연구

.....

研 究 生 姓 名	金美兰
培 养 单 位	延边大学
指导教师姓名、职称	禹尚烈教授
学 科 专 业	比较文学与世界文学
研 究 方 向	东西方文学与比较文学
论 文 提 交 日 期	2018 年 5 月 27 日

本论文已达到文学博（硕）士学位论文要求

答辩委员会主席_____（印）

答辩委员会委员_____（印）

答辩委员会委员_____（印）

答辩委员会委员_____（印）

答辩委员会委员_____（印）

延 边 大 学

2018 年 5 月 25 日

学位论文独创性声明

本人郑重声明：所呈交的学位论文系本人在导师指导下独立完成的研究成果。尽我所知，除了文中特别加以标记和致谢的部分外，论文中不包含其他人已经发表或撰写过的研究成果，也不包含本人为获得任何教育机构的学位或学历而使用过的材料。与我一同工作的同事对本研究所做的任何贡献均已在论文中作了明确的说明并表示谢意。

本人如违反上述声明，愿意承担由此引发的一切责任和后果。

研究生签名： 日期：____年__月__日

学位论文使用授权声明

本人在导师指导下所完成的学位论文，学校有权保存其电子和纸制文档，可以借阅或上网公布本学位论文的全部或部分内容，可以向有关部门或机构送交并授权其保存、借阅或上网公布本学位论文的全部或部分内容。对于保密论文，按保密的有关规定和程序处理。

本学位论文属于：

1. 保密 ☐，在____年解密后适用于本声明；2. 不保密 ☐。

研究生签名：导师签名： 日期：____年__月__日

摘 要

本研究的目的是，从‘游牧精神(Nomadism)’观点，观察三毛、田惠麟共同点。因为她们在作品和生活中显露出来的意识世界和生活方式都十分相似，她们超越时空的制约、开创了新生活、创造了属于独特的风格，从本文将她们足迹中分析其中的同质性。而且进一步考察在变化无常时代里，她们追求的‘游牧精神’对现代人有什么意义和启示。

从 1791 年英国‘Mary Wollstonecraft’和法国‘Olympe de Gouges’女权运动开始以来，西方国家不断高呼女性地位的口号。与这些西方国家相比，大多数亚洲国家一直到 20 世纪还持有了对女性的传统观念和不平等待遇。本论文研究的两位女作家——中国的三毛和韩国的田惠麟，在这种社会普通观念之下，却没有无可奈何地墨守成规，相反了‘游牧精神’敢于开拓不毛之地，勇敢地向新的草地奔驰。她们面对逆流而上了潮流的动力就是 Nomadism，这种精神反映在她们作品中。因此，本论文主要研究了这两位作家的文学生涯和作品当中体现出来的‘游牧精神’方面的同质性。

三毛和田惠麟摆脱了单一化、结构化的意识世界，充满自我意识，毫无畏惧地走入游牧道路，给我们留下了深刻的启示。现代人面对着无路可走自我意识的现实而懦弱无能。然而，她们亲身提示，走入游牧生活也是另一个可行的选择。她们打开一扇门，让现在的我们看到 vision 的就是她们的‘游牧精神’同质性。

关键词： 游牧精神(Nomadism)；开拓；自我意识； 同质性；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Sanmao' and 'Jeon Hye-rin' in the view of Nomadism. The lifestyles in their literary work were very similar and they created a new life and a unique way of transcending time and space. In this paper they analyzed their common points. Furthermore, this study said that the two women looked at the guidelines and implications presented to the rapidly changing global era.

In the West, women have been calling for improvements in women's status through 'Merry Wollstonecraft' of England and 'Olympe de Gouges' of France in 1791. Compared to these Western, countries in the Eastern region of the world still lack the stereotypes and inequalities of society for women in the 20th century.

'Sanmao' and 'Jeon Hye-rin', the subject of this thesis, ventured toward a new spiritual meadow aiming to plow wasteland with a nomadic spirit without resting on the social norm. They live in the dim spirit of the nomads and their spirit stands out clearly in their literary work. The most important focu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imilarities in each of the 'Nomadism' which appears in the lives and literature of the author.

The lives and literary works of 'Sanmao' and 'Jeon Hye-rin' are strong. They shouted their loudest to the weak modern people who fear the end of the road, walking to the nomads' lives is another way and choice. Two women who opened the door to the street, presented another vision for the people of today.

Key words: Nomadism; pioneer; self-consciousness; common ground

목차

摘要.....	I
Abstract	II
제 1 장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의의	(1)
1. 2 선행 연구와 검토	(2)
1. 3 연구 대상 및 방법	(4)
제 2 장 三毛와 전혜린	
2. 1 三毛의 생애와 작품 세계	(9)
2. 2 전혜린의 생애와 작품 세계	(13)
제 3 장 三毛와 전혜린 노마디즘의 동질성	
3. 1 페미니즘이 아닌 노마디즘	(16)
3. 1. 1 아버지의 영향으로 넘어선 페미니즘	(18)
3. 1. 2 여성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고뇌	(20)
3. 2 시대를 뛰어넘은 노마디즘	(22)
3. 2. 1 서양의 선진문화와 사상을 습득	(22)
3. 2. 2 성장기에 획득한 경험	(23)
3. 2. 3 현실을 넘어선 미래의 비전	(24)
3. 3 강렬한 삶으로 써내려간 노마디즘	(26)
3. 3. 1 멈출 수 없는 자의식의 도전	(27)
3. 3. 2 유랑에 함께한 전폭적인 지지자	(28)
3. 4 자살로 멈춰버린 노마드의 길	(29)
제 4 장 동질성에 가려진 이질성	
4. 1 낙관주의와 염세주의	(31)
4. 2 외강내유와 외유내강	(33)
결론	(36)
참고문헌	(39)
감사의 말	(41)
부록 A	(43)

제 1 장 서론

벽돌로 살것인가 아니면 벽을 허물것인가라는 명제는 인류 역사상 끊임없는 도전의식의 출발점이었다. 이러한 화두를 품고 사회적 통념에 안주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벽을 허문 사람들이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유목민적인 정신으로 불모지를 헤치고 나간 사람들에 대하여 연구했다.

그들의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일련의 정신세계와 삶의 방식은 매우 파격적이고 시대를 앞서간 것이었다. 이들의 문학과 삶의 여정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편파적이고 어두운 시기에 특별한 유랑자(Nomad)로 살아갔다는 점이다. 돌같이 단단한 현실에 특정한 자의식을 뿌리 내리고자 하는 강렬한 노력이 작품 속에 뚜렷하게 부각되어 있다. 이들은 바로 중국의 三毛와 한국의 전해린이다.

1791 년 영국의 여성작가이자 여성 권익을 위한 사회운동가인 ‘메리 울스톤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¹ 와 프랑스의 사회운동가 ‘올랭프 드 구주(Olympe de Gouges)’² 에 의해 시작된 여권신장 운동은 가정안에서 여성들의 권익과 지위를 부르짖었다. 그런데 이러한 서구 여러나라들에 비해 동양권에 속한 나라들에서는 20 세기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여성들에 대한 사회의 고정 관념과 불평등이 심했다. 또한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으로 인식했던 시대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여성이라는 굴레로 억압받고 사회의 ‘유리벽’을 깨내면서 활동한 두 작가의 탁월한 능력과 진취적인 결단은 단호했다. 그러나 이들이 품고 살아간 자의식은 여성이라는 굴레를 벗어나려는데 그치는 단순한 페미니스트의 저항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한계를 딛고 한 인간으로서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의식세계를 삶으로 살아가려는 노마드의 특성이 더 뚜렷했다. 그러한 선구자들의 몸부림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사회에서

¹ 1759 년 4 월 27 일에 출생하여 1797 년 9 월 10 일에 사망. 18 세기 영국의 작가·여권신장론자. 여성 자신의 자각을 호소하는 《여성의 권리옹호》(1792)를 저술, 기존사회 관념에 도전하며, 여성의 교육적·사회적 평등을 주장하였다.(두산 백과 참조)

² 1748 년에 태어나 1793 년에 사망. 프랑스의 시민운동가이다. 프랑스혁명 시기에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혁신적인 주장을 하였다.(위키 백과 참조)

특정한 유랑적 삶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앞서 걸어간 선각자들이 있었기에 여러 사람들이 현재의 장벽을 뚫고 또 다른 三毛와 전해린이 되어 스스로 결단한 유랑과 개척의 도전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작가의 문학 작품과 그 작품들 속에 그려지는 한 인간으로서의 처절하고 유랑적인 삶을 추적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의식과 삶의 본질에 대한 동질성을 분석했다. 이것을 현대 철학의 한 개념인 노마디즘(Nomadism)³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즉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신들의 자의식을 붙들고 삶을 개척하고 작품 활동을 해 나간 두 작가의 족적에 대한 동질적 노마디즘에 대한 고찰이다. 연구를 진행해 감에 있어서 실제적 근거는 三毛와 전해린이 남겨놓은 문학 작품에 나타난 수 많은 에피소드들이다. 그리고 실제 그들 삶의 방식 더 나아가 주변인들에게 남겨 놓은 여러 후일담은 통해 기술했다.

1.1 연구 목적 및 의의

모든 시대마다 시간적 한계를 넘어 이미 미래를 살다간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관념과 행동 방식들로 인해 당시에는 이단아로 취급되는 건 시대적인 상식이었다. 더구나 그러한 사람들이 창작해 내는 예술 작품들은 공감대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고착되고 통념화된 사고를 가진 기득층에 의해 이런 존재들을 스스로 자의식과 현실의 대립으로 끝없는 투쟁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시공간의 흐름이 지나간 후에는 그 앞서간 이들은 예언자적 위치로 올라가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그 때가 되어서야 그들의 선구적 의식과 삶에 대해 경의를 표하곤 한다. 여기 그러한 삶을 살다간 두 사람의 작품과 생애를 통해 흐르고 있는 시대를 앞선 특정 자의식과 관념을 고찰해본다. 그리고 실제 삶의 방식에 대해 접근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과 한국의 두 작가의 작품 비교를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식 세계와 삶의

³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철학적 개념.(두산 백과 참조)

방식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그 비교 연구의 시각을 통해 두 작가와 작품 세계에 나타나는 동질적인 점들을 분석한 작가 연구이다. 이미 형성되어 버린 글로벌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노마디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미 반세기 이전에 중국과 한국에서 노마디즘의 특성을 동질적으로 나타내는 三毛와 전혜린에 대한 비교 연구가 주된 목적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매우 진지하고 영향력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했던 관념과 삶의 방식은 당시로는 매우 급진적인 것이었다. 마치 유목민처럼 닫힌 문을 열고 자신의 내재된 특별한 관념과 그것을 가지고 거침없이 펼쳐나간 삶이 작품을 통해 드러나 있다. 그래서 이들의 문학 작품을 읽는 대중들에게 기존의 것과는 다른 삶의 방식과 사유의 방식을 제시하였음을 밝히는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발견한 것은 예민하면서도 강력한 자의식의 확장을 현실속에 끊임없이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과격이라고 표현해야 옳을 것이다. 그들은 생전에 자신들의 문학 작품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쏟아냈다. 그러한 것들이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에 이르러서도 많은 각광을 받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앞서간 그들의 유량적 삶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이고 예견적이었나를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급변하는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또 다른 방향성과 용기를 주는 점을 유추해 낸 것이 이 연구의 큰 의의라고 하겠다. 그리고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 표현해 낸 것을 삶으로 살았던 ‘노마디즘의 실존적 본질’을 발견해 낸 것이 본 연구에서 또 하나의 의의가 아닐까 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연구 대상 및 연구 목적 그리고 선행 연구와 연구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리고 三毛와 전혜린의 생애와 작품 세계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본론에 들어가서 노마드와 노마디즘에 관한 정의를 시작으로 그들의 생애와 작품을 통해 본 두 작가 노마디즘의 동질성에 관하여 다루었다. 뚜렷한 동질성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질성도 잠시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와 같은 유량의 여정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의미와 던져주는

화두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1.2 선행 연구와 검토

三毛(본명은 陈平, 이하 그의 필명인 三毛로 칭함)와 전해린은 매우 짧은 생을 살다가 자살로 생을 마친 인물들이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의식 세계는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었다. 또 누구도 감히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한 양상과 삶으로 살아간 모습은 작품들 속에 가감 없이 표현되었다. 또한 유머러스하고 유쾌하며 때로는 지나치게 우울하고 감성적으로 묘사되어 독자들을 만났다.

三毛의 문학 작품은 중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출판되어 넓은 독자층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국어로 된 두 권의 수필집이 번역본으로 출간되면서 그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선행 연구들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작가와 작품에 대하여 연구한 소수의 학술 논문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녀에 관한 학술 연구 자료는 다음과 같다. 울산대학교 중국어교육대학원 이해영의 <마오소설선택(毛小说选译)>⁴과 계명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명희의 학위 논문인 <허수아비 수기(稻草人手记)>⁵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三毛의 《사하라 이야기(撒哈拉的往事)》⁶, 《흐느끼는 낙타》⁷등을 통해 연구했다. 중국에서 재출판된 《우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雨季不再來)》⁸, 《허수아비 수기(稻草人手记)》⁹, 《사하라 이야기(撒哈拉的往事)》¹⁰도 연구의 참고 자료로 인용하였다.

전해린도 31 세로 일생을 마쳤기 때문에 본인의 창작 문학 작품이 적다. 그녀는 수필가이면서 독일 문학 번역가였다. 당시 뮌헨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던 한국인 교수 이미륵에 대해 연구하던 중 그의 독일어 저서 《압록강은 흐른다》를 완역하여 한국에서 발표하였다. 또한 그녀가 뮌헨대학에서 공부하던 시절 니체,

⁴ 이해영, <三毛小说选译>,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⁵ 박명희, <허수아비 수기(稻草人手记)>, 계명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⁶ 三毛, 《사하라 이야기》, 막내집게, 2008.

⁷ 三毛, 《흐느끼는 낙타》, 막내집게, 2009.

⁸ 三毛, 《雨季不再來》, 北京十月文艺出版社

⁹ 三毛, 《稻草人手记》, 北京十月文艺出版社

¹⁰ 三毛, 《撒哈拉的往事》, 北京十月文艺出版社

프로이트 그리고 그들의 연인 ‘루 살로메’에 심취하였고 독일 철학에 몰두한 탓에 귀국 후에 번역했던 책들에는 그러한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루이제 린제의 《생의 한가운데서》, 하인리히 뵐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등과 같은 독일 문학작품을 번역해냈다.¹¹ 이러한 작품들과 그녀가 사망한 후에 일기와 편지 등을 모아 출간된 그녀의 유고작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¹² 와 《이 모든 괴로움을 또 다시》¹³ 를 포함한 몇 작품들을 통해 그녀의 의식 세계와 삶의 모습을 연구해 보았다. 전해린에 관한 학위 연구 논문인 한남대 교육대학원 조옥정의 <전혜린 수필 연구>¹⁴, 심리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안태진의 <다중지능 이론의 관점에서 본 전해린의 삶>¹⁵,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이명지의 <전혜린 수필 연구>¹⁶ 등을 참고로 하여 전해린의 작품과 삶을 분석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본 연구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 본 결과 매우 적었다. 그녀들 개인에 관한 연구가 이처럼 소수였고 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노마디즘(Nomadism)의 개념을 문학에 적용하여 연구한 자료를 쉽게 찾아 볼 수 없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주제는 아직 시도된 바 없는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교 문학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한국의 두 천재적인 작가의 작품과 생애의 동질성을 비교 분석하는 시도는 찾아내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의 연구는 매우 흥미롭고 신선한 시도라고 자부한다.

1.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 대상은 중국의 三毛와 한국의 전해린이다. 그리고 그들의 작품들이 대상이다. 그래서 이 두 여성 작가의 작품과 그들 주변에 있었던 지인들의 평가 그리고 학술적 논문을 검토하여

¹¹ 하인리히 뵐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루이제 린제의 《생의 한가운데서》, 이미륵의 《암록강은 흐른다》 등의 10 여 권에 달하는 독일 문학 작품의 전해린 번역 저서.

¹² 전해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서출판, 2004.

¹³ 전해린, 《이 모든 괴로움을 또 다시》, 민서출판사, 2002.

¹⁴ 조옥정, <전혜린 수필 연구>, 한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¹⁵ 안태진, <다중지능 이론의 관점에서 본 전해린의 삶>,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¹⁶ 이명지, <전혜린 수필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분석하였다. 노마디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두 사람의 작품 속에는 뚜렷한 동질성이 드러나 있다. 이것은 페미니즘과는 다른 성격의 관념이며 특정한 의식세계라고 본다. 三毛와 전해린이라는 두 작가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비교했을 때 이들이 살았던 시기와 작품 성향은 매우 흡사하다. 더욱이 두 사람의 작품을 읽다가 각각의 삶이 매우 너무나 흡사하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두 작가의 작품세계를 정의할 수 있는 노마디즘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동질성 연구를 해 보았다.

노마디즘이 가지는 원래의 의미는 삶의 방식을 특정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새로운 공간을 찾아가는 유목민에 비유한 철학적 용어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질 들뢰즈(Gilles Deleuze)’와 ‘펠릭스 가타리(Felix Guattari)’의 《천(千)의 고원, 자본주의와 정신 분열증》(1980)에서 언급된 개념이다. 이후 2002 년 한국의 철학자인 이진경이 여기에 다루어진 유목주의에 주의하면서 재해석하여 제시한 명제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의 저서 《노마디즘 1, 2》(2002)를 통해 노마디즘을 어떤 외부적인 체계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탈주하면서 사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후기 산업사회에 나타나는 가치관의 끊임없는 변화의 양상을 의미했다. 더불어 들뢰즈와 가타리의 유목론에 주목하여 《노마디즘》을 펴냈다.

이렇듯 노마디즘은 '유목주의'라는 원래의 의미를 넘어 점차 전반적인 사회의 현상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사용되었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보편적인 확산에 의하여 나타나는 기존 질서의 해체, 인터넷과 무선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모바일 생태계의 확장 등은 노마디즘의 보편성과 일반화를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로 언급되었다. '노마디즘'이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이동(移動)의 이미지도 모바일 기술의 이동성과 연결되어 철학 분야뿐 아니라 정보통신 산업과 광고에서 활용되기도 했다. 좀 더 확장된 의미에서는 기존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불모지를 옮겨 다니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유목민의 삶과 같은 일체의 방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은 철학적 개념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문화·심리 현상을 설명하는 말로도 쓰인다.¹⁷

¹⁷ 네이버 백과에서 참조

유목민, 유랑자를 뜻하는 ‘노마드(Nomad)’는 중앙아시아와 몽골 대초원 그리고 사하라 사막 등의 건조지역에서 목축을 업으로 삼아 풀과 물을 찾아 다니면서 생활하는 무리를 말한다. 오늘날에는 이 개념이 변이되어 디지털 기기를 들고 다니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이버 세계를 누비는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한다. 몽골 제국의 영웅이었던 칭기즈 칸(成吉思汗)의 묘비에는 ‘성을 쌓는 민족은 망하고, 길을 뚫는 민족은 흥한다.’라는 글이 적혀있는데 바로 노마드의 정신을 정확히 표현한 것이다.

이상에서의 개념을 본 연구의 주제 분석 용어로서 정의하고자 한다. 노마디즘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으로는 앞서 언급한 ‘유목주의’¹⁸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유목주의’에서 더 나아가 특정 관념의 세계를 포함하고 있다. 철학의 개념에서 출발한 노마드 혹은 노마디즘은 철학이라는 영역에서 이미 뛰쳐 나와 전 세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어 공감대를 이루는 용어로 자리잡았다. 즉 전 지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유목민이라는 개념을 생산해냈다. 더 나아가 현대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디지털 세계와 사이버 공간을 유랑하듯 누비고 다니는 현대인들의 생활에도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이고 다양한 영역에서 유목주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마디즘을 배제한다. 단지 관념과 자의식에서의 유목민적 특징과 그것을 삶으로 실행한 개념으로만 정의한다. 그래서 본 주제 분석에 있어서는 이 관점으로 접근하여 두 작가의 작품과 거기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고찰하여 동질성을 유추해낸다. 더 나아가 그 동질성 가운데 내재하고 있는 부분적 이질성도 살펴본다.

연구 방법은 비교문학의 수평연구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문학 작품과 그 작품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독특하고 실질적인 두 작가의 삶을 우선 분석하였다. 그래서 그 작품들을 관통하는 특정한 의식 세계인 노마디즘을 비교하여 동질성을 찾는 연구를

¹⁸ 일정한 거처를 정하지 아니하고 물과 풀밭을 찾아 옮겨 다니면서 목축을 하여 사는 생활 방식. 특정한 가치나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려는 사고방식을 말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프랑스 철학자 들뢰즈의 저서에서 현대 철학 개념으로 사용한 용어를 인용한다.(다음 백과)

하였다.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전제적 개념에 대한 일련의 정리가 필요하다. 다음 세 가지의 정리된 개념을 가지고 분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다.

첫째, 페미니즘과 노마디즘의 개념에 대한 것이다. 페미니즘이 광범위한 의식세계를 의미한다고 보면 그것을 실천하려는 일련의 방법론의 하나로 노마디즘을 채택하여 분석했다.

둘째, 노마디즘의 요소로서 ‘유랑, 유목, 방랑’ 등의 용어는 이 연구에서만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또한 ‘자의식, 자기의식, 자아의식’¹⁹ 등의 단어가 반복 사용되는데 이것 또한 동일한 개념으로 서술됨을 밝힌다.

셋째, 노마디즘은 흔히 유목주의로 번역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단지 유목주의로만 번역할 수 없는 특정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더불어 본고에서 표기하는 중국어 인명과 서명은 가능한 원래의 명칭대로 사용하였고 특정 용어가 반복 사용될 경우에는 ()안의 표기는 생략하였다.

제 2 장 三毛와 전혜린

두 작가의 노마디즘의 동질성을 발견하기 위해 우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남아있는 흔적들을 밟아가는 것에서 출발했다. 작가인 두 사람은 작품 속에 그녀들의 삶을 여과없이 그려놓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짧은 생애를 살다간 터라 충분한 자료를 찾기 어려웠다. 다행히 작품들이 출판물로 남아 있고 그들이 쓴 수필과 일기에는 자신들의 생각과 삶의 모습들이 단편적으로나마 충만하게 표현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검토하고 인용한 작품들이 자전적인 내용을 다룬 산문으로 되어 있어 그들이 가진 의식이나 관념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들을 직접적으로 찾아낼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 작품들에서 읽어낼 수 있는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또한 주변 지인들의 증언 및 관련 문학 작품을 통해 두 작가의 생애를 고찰해 본다.

¹⁹ 타인과 구별되는 자기에 대한 의식을 뜻함.(한국어 사전 참조)

2.1 三毛의 생애와 작품 세계

대만의 여성 작가인 三毛의 본명은 천평(陈平)이다. 三毛는 필명이다. 장악평(张乐平)의 《싼마오 유랑기(三毛流浪记)》²⁰라는 만화에서 유래했다. 어린시절 그녀는 이 만화를 좋아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자신의 글이 三毛 정도의 가치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도로도 사용한 것이다. 그녀는 1943년 충칭(重庆)에서 태어나 변호사인 아버지를 따라 대만으로 이주하게 된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는 책 읽기를 유난히 좋아했고 과할 정도로 글의 내용에 몰입하곤 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그녀는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에서 유급이 두려워서 수학 모의고사 문제들을 모두 외워 좋은 성적을 얻는다. 이를 이상히 여긴 수학교사가 다른 문제를 풀어보게 했다. 당연히 풀지 못하자 三毛가 컨닝한 것으로 오해하고 얼굴에 먹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운동장을 돌게 하는 등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²¹

어린 시절 이 사건을 겪으면서 그녀는 자폐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부모는 딸을 자퇴시키고 치료를 시작한다. 집에서 독학하면서 불안 증세가 더욱 더 심해지고 급기야 여러 차례의 자살을 시도한다. 그러던 중 꾸푸성이라는 화가에게 유화를 배우게 되면서 자폐 증세가 점차 호전되고 더불어 내적인 세계를 표현해 낼 수 있는 문학의 길에 들어선다. 꾸푸성의 친구를 통해 《현대문학》에 《혹》을 발표했다. 그 후에 연이어 소설을 써서 발표하는데 《이국지연(异国之恋)》, 《월하(月河)》 등과 같은 다수의 작품이다.

대만의 중국문화학원(현재, 중국문화대학) 철학과에 입학하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정신적인 방황을 하고 게다가 첫사랑에도 실패한다. 그 아픔을 잊기 위해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로 유학을 결심한다. 그 후 독일 괴테협회²²에서 독일어 공부를 마친 뒤 미국 시카고의 한 법률회사에서 근무한다. 그리고 1972년 대만으로

²⁰ 《三毛流浪記》-張樂平 1930-1940 대 상하이로 배경으로 三毛라는 어린 아이가 유랑을 겪는 만화 영화로 중국의 어린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²¹ 이혜영, <三毛小说选译>,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²² 독일 뮌헨에 본부를 둔 독일어 및 독일 문화 보급기관. 독일 협회라고도 함(위키백과 참조)

다시 돌아와 독일어 강의를 하게 된다. 거기서 만난 독일인과 약혼을 하게 되지만 약혼자가 갑작스러운 심장병으로 사망하면서 다시 절망의 늪으로 빠진다. 그로 인해 자살을 시도한다. 하지만 그 비극적인 처참한 상황에서 털고 일어나 또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 유럽으로 떠난다. 이때 만들어진 작품이 《유럽 여행 견문록》이다.

이 책에 실린 내용 중 <돼지 호랑이 잡기 게임>이라는 내용을 보면, 런던 공항에서 그녀가 이민국 담당자들에게 입국 거부가 되어 감금된다. 그러나 공항 직원들과 당당하게 논쟁을 벌여 오해를 풀고 목적지인 스페인으로 향한다. 자그마한 동양 여자를 무시하고 깔보던 영국 직원들을 무색하게 만든 그녀는 오히려 런던 공항이 제공한 택시를 타고 식사까지 제공받는다. 유랑의 길에서 낮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낙심하고 풀이 죽게 마련이지만 그녀의 관점은 달랐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을 오히려 즐기고, 더 나아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그녀의 자의식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생은 한 편의 꿈과 같다. 많은 세월 동안 내가 마드리드에 있던 파리에 있던 베를린 혹은 시카고 또는 타이베이에 있던 아침에 깨어날 때면 항상 몇 초 동안 생각하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머릿속은 순간 새하얗져서 한참을 생각해야 “아 내가 여기 있구나!” 깨닫게 된다. 정말 나비가 내 꿈을 꾸는 것인지 내가 나비의 꿈을 꾸는 것인지 이렇게 어리둥절 한 채로 반 평생이 그렇게 지나가 버렸다.²³

스페인 청년 호세와의 결혼은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준다. 스페인 유학시절 7 살이나 연하인 호세라는 어린 스페인 남학생과 서로 호감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주변의 우려와 좋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되자 三毛는 연하의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로 결심을 한다.

그러나 6 년이 지난 후, 그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 三毛에게 청혼한다. 호세의 그녀에 대한 단호함에 결국 결혼을 결정한다. 둘은 스페인령이던 사하라 사막의 한 법원에서 결혼식을 치른다. 이러한 에피소드를 재미있고 유쾌하게 표현한 작품이 《사하라

²³ 이혜영, <三毛小说选译>,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13p.

이야기(撒哈拉的古事)》²⁴에 실린 <결혼 이야기(结婚记)>에 잘 나타나 있다. 사막 한가운데서 스페인 청년이 결혼을 위해 뛰어나고 그것을 바라보는 행복한 여인 三毛는 아주 통쾌하고 흥미로운 시선으로 <결혼 이야기>를 써 내려갔다. 기상천외한 결혼식을 마치고 사하라 사막에서 둘은 행복한 신혼 생활을 보낸다.

《사하라 이야기》에 실린 <사막의 중국식당(沙漠中的饭店)>은 이 시절의 에피소드를 작가만의 위트와 메타포를 사용하여 재미있게 묘사해 나간 작품이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변 환경이 온통 황량한 사막인 매우 열악한 삶이었지만 三毛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유목민적인 정신과 그녀만의 유쾌한 삶이 작품에 잘 드러나 있다. 당시의 사회적인 인습과 관념을 넘어 자신의 사랑을 믿고 결정한 결혼이었지만 호세는 스페인의 가부장적인 성향에 철저하게 젖어 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미 그녀는 결혼이라는 굴레가 부여하는 기존 관념을 초월하여 서로 자유로운 존재로 함께 길을 가는 ‘서로의 반쪽’이 아닌 ‘온전한 하나’가 함께 하는 생활을 실천에 옮겼다. 자신의 작품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우리가 처음 살림을 합칠 때, 함께 살아가는 동행이 되길 바랐을 뿐, 둘 다 서로에 대해 과분한 요구나 구속하려는 마음은 없었다....(중략)...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 조그만 집에서 이리 저리 다니며 각자의 일을 했고 모퉁이에서 부딪치면 재빨리 몸을 돌려 비켜줄 때의 그 표정은 그림자에게 길을 비켜주는 것처럼 무표정했다. 더 많은 밤을 각자의 책을 안고 날이 밝을 때까지 매달리며 혼자서 책보고 크게 웃거나 말없이 눈물 흘려도 결코 “무슨 일이야? 미쳤어?”라고 묻는 법이 없었다.²⁵

서 사하라가 전란으로 휩싸이게 되자 두 사람은 사하라 사막을 떠나 카나리아 제도로 가서 결혼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 이때 발표한 산문집인 《허수아비 수기(稻草人手记)》²⁶는 카나리아 제도에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솔직하면서도 그녀만의 필체가

²⁴ 삼모, 《사하라 이야기 (撒哈拉的古事)》: 썬마오 산문집, 막내집게, 2009.

²⁵ 이혜영, <三毛小说选译>,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p 33~44.

²⁶ 박명희, 《허수아비 수기(稻草人手记)》, 계명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느껴지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이 살아있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어디에 있든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유목민이었다.

그러나 불행은 다시 그녀를 찾아왔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결실을 맺은 결혼생활 5년 만에 남편인 호세가 급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한다. 三毛는 다시 한번 고통의 늪 속으로 빠져들고 만다. 지난 날 약혼자의 죽음이 가져다 준 절망이 다시 그녀를 덮쳐 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이제까지 해 온 방식대로 다시 정신적인 새 초목지를 찾아 나선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친정 식구들이 살고 있는 고국 대만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곳에서 강단에 서서 《나의 보배(我的宝贝)》를 비롯한 많은 작품을 발표하며 새 삶을 개척해 간다.

그녀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은 절대로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슬픔이나 고통을 통해 인생에서 더 성숙해 진다는 내용의 글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자신만의 적응 방식을 통해 고통 속에서 다시 발걸음을 옮겨 정신적인 유량을 지속하는 삶에 대한 의지였다.²⁷ 그러나 그녀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의 하나였다. 힘든 삶의 역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 부단한 달음박질 해 왔지만, 오랜 정신적인 고통과 고질적인 병증은 이어졌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연이은 인간적인 불행과 고통의 막다른 골목에서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다. 1991년 어느날 한 병원에서 자살로 48년간의 방랑의 삶을 끝내고 말았다.

三毛는 독특한 소재와 유량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여정에서 얻어진 풍부한 경험을 유머러스하고 유쾌한 표현으로 작품에 써 내려갔다. 이로 인해 신선한 도전 정신과 그녀만의 매력을 독자들에게 선사했다. 그녀의 작품을 읽다 보면 三毛만의 육감과 인식을 통해 막힌 답을 거침없이 뚫고 나가는 강인한 유목민적인 삶에 빠져들게 된다. 그런 이유로 독자들의 갈채와 사랑을 받으면서 ‘유량문학’이라는 문학의 한 영역이 탄생되기도 했다. 특히, 그녀의 노마드적인 삶에 대해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하게 되었다. 고통과 유량을 두려워하지 않은 유목민과 같은 생애와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싼마오의 열기(三毛热)’를 일으키며

²⁷ 이혜영, <三毛小说选译>,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5.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한 갈채를 받고 있다.

2.2 전혜린의 생애와 작품 세계

전혜린은 불꽃처럼 사다간 ‘광기의 천재’ 또는 ‘한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천재’로 불리는 한국의 여류 작가다. 평생 가슴에 자리잡았던 명제 ‘절대 평범해선 안 된다’를 실천하며 살았던 한 시대 청년들의 대표적인 아이콘이었다. 그녀는 1934년 일제강점기에 평안남도 순천에서 8남매의 장녀로 태어난다. 전혜린의 아버지는 29세에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 행정 양과에 합격한 수재였다. 당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빈곤하고 껍질한 삶을 살았던 시대였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 상황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영향으로 전혜린은 상류층의 풍족한 생활을 누렸고 마치 소공녀와 같은 유복함을 누렸다. 어릴 때부터 뛰어나게 명석했던 그녀는 아버지에게 절대적인 존재였고 아버지 또한 그녀에게 신적인 존재였다.

어린 시절부터 법률가였던 아버지의 부임을 따라 여러 곳을 옮겨 다닌 전혜린에게 고향이라는 개념은 가지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자신을 ‘고향이 없는 아이’ 또는 ‘아스팔트 킷’²⁸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때부터 전혜린은 유랑과 방랑에 익숙해 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녀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한국의 최고 명문대학인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에 입학한다. 수학 점수가 0점이 나왔으나 다른 과목의 성적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무난히 합격했는데 수학 점수를 빼고도 전체 2등이라는 천재성을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전공인 법학보다 ‘고든’²⁹이나 ‘엘리엇’³⁰에 관한 문학 수업을 도강하며 문학에 빠져들었다. 날카로운 그녀의 감성과

²⁸ 독일어 Asphalt kind : 아스팔트만 보고 자란 도시의 고향 없는 아이들이라는 뜻이다.

²⁹ 고든(Adam Lindsay Gordon 1833~1870) 오스트레일리아의 시인. 처음으로 오스트레일리아 특유의 관용어를 구사하여 작품을 쓴 시인이다. 강한 리듬과 소박한 사고가 돋보이는 고든의 작품은 널리 읽혀 몇몇 시구들은 오스트레일리아 표준어휘로 채택되어 쓰이고 있다.(다음 백과)

³⁰ 엘리엇(T(homas) S(tearns) Eliot 1880~1965) 미국에서 출생한 영국(미국) 시인. <황무지> 같은 시와 <성당의 살인>·<각테일 파티> 등의 희곡을 통해 모더니즘 운동을 주도했다. 엘리엇은 제 1차 세계대전과 제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20세기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는 시어·문체·운율 등의 실험으로 영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일련의 평론들을 통해 과거의 정통적 견해를 타파하고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다. 가장 위대한 영국의 시인이자 문학가로 인정받아 1948년 메리트 훈장과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다음 백과)

의식은 문학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딸의 독일유학과 돌발적인 행동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점차 불화의 벽을 쌓게 된다. <목마른 계절>이라는 글에서 그녀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흔히 딸이 그렇듯 아버지를 숭배하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마음에 들고 싶다는 욕망이 의식 밑에서도, 또 의식 표면에도 언제나 있었다. 아버지로부터 칭찬받고 싶다는 마음이 실현될 때마다 나는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행복 했었다. 이 욕망은 아직도 내 의식 밑의 심층에 남아 있다....(중략)...의식 세계에서 나는 결국 언제나 아버지를 대상으로 지식을 쌓아 올렸던 것 같다. 마치 제단 앞에 향불을 갖다 쌓듯.³¹

1955 년 가을, 그녀는 독일의 뮌헨대학으로 유학을 떠난다. 강렬한 인식욕과 날카로운 감수성을 가진 전혜린은 전공을 바꾸어 문학과 철학을 공부하게 된다. 니체의 연인이었던 ‘루 살로메’³² 에 열광했고 수많은 문학 작품과 철학에 대한 깊은 몰입을 한다. 그러나 한국인 유학생이 거의 없어 외로움과 고독에 시달렸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궁핍이 일상이었다. 게다가 어린 동양 여학생이 외국 학생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수한 정신과 오만한 패기로 살아야만 했다고 자전적 수필에서 적고 있다. 때로는 일 주일간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물만 마시며 버텨내기도 했다.

그러나 유복한 생활을 했던 그녀에게 이처럼 처절한 상황의 결핍은 자의식과 삶에 대한 하나의 색다른 방식의 사유를 갖게 했다. 뮌헨 대학생의 가장 두드러진 기질은 반항적이며 정신의 자유를 지키려는 전설이다³³ 라고 자신의 글에서 당시를 표현한 것을 보면 이러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녀는 6 개월 후 독일로 뒤따라 온 약혼자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서 딸을 출산한다.

³¹ 이명지, <전혜린 수필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³²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Lou Andreas-Salomé, 1861 년~1937 년 1 월 5 일)는 독일의 작가이자 정신분석학자이다. 많은 소설과 수필 등의 작품을 남겼으며 특히 니체, 릴케, 프로이트 등 당대 유럽 최고의 지성인들을 매혹시키며 이들과 사랑과 교감을 나누며 이들에게 창조적 영감을 주었던 여인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저서에는 《릴케》(Rainer Maria Rilke, 1928), 《프로이트에 대한 나의 감사》(Mein Dank an Freud, 1931) 등이 있다. (위키 백과 참조)

³³ 전혜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서 출판, 2004, p.60.

지속되는 결혼 생활은 궁핍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다. 전혜린의 수필집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에 실린 육아일기를 살펴보면 딸 정화에 대한 그녀의 모성애와 감성은 유별났다.³⁴

나에게 이런 아이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가끔 아직도 안 믿어질 때가 더러 있다. 정말로 내 아이일까? 하는 경이와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가 가끔 있다. 나에게 무슨 보상으로 신은 이런 아이를 주셨을까? 이런 생각도 난다.³⁵

이와 같은 구절만 봐도 그 힘든 유학생생활과 궁핍한 결혼생활 속에서 딸의 탄생과 육아의 과정에 전혜린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인식과 삶에 대한 긍정적 풍요로움의 감성을 보여주었다.

4 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전혜린은 여러 대학에서 독일문학과 관련된 강의를 맡는다. 당시 여학생조차도 많지 않은 매우 보수적인 한국의 대학사회에서 26 세의 어린 여성이 교수로서 명문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주변의 우려와 눈총을 짊어지고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야 했던 그녀의 현실은 불모지에 던져진 유목민과 같았다. 그러나 자신에게 맡겨진 강의와 독일 문학의 번역에 관한 청탁 원고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해내곤 했다. 그리고 그 작품들은 전문가들에게서 호평을 받곤 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보다 철저히 해 내던 그녀였지만 짧은 결혼생활은 이혼으로 막을 내린다.

그 후에 여러 차례 불같은 사랑의 기회가 찾아왔다. 한번은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에 다니던 연하의 제자와 깊은 사랑에 빠진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그것은 대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제자의 어머니가 찾아와 전혜린 앞에 무릎 꿇고 아들과 헤어져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자신의 아들이 이혼한 연상의 여인과 사랑에 빠진 것을 보고 눈물로 호소하는 모성은 전혜린의 결단을 내리게 했다. 이러한 어머니의 모성을 받아들인 전혜린은 지독히 사랑했던 어린 연인을 냉정하고 과감하게 떠나 보낸다. 이렇듯 그녀는 자신의 감성과 기존 관념의 대립을 향해 꺾끗하게 다시 마주서서 걸어가야만 했다. 그녀다운 결단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각적 지성인으로서의 삶은 결코 기록하지 않았다. 항상

³⁴ 위의 자료 p.p 206~251.

³⁵ 위의 자료. p.212.

다른 사람이 걸어가보지도 못한 새로운 거친 길을 가야 했고 그에 따른 결과를 지켜보는 사회의 벽을 향해 당당해야 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의 자의식이었기 때문이다. 절대로 평범해서는 안된다고 다짐하는 그녀의 내면에 새긴 의식이 바로 그것이었다. 또한 항상 내부에서 맴도는 ‘권태’와 ‘광기’는 유학시절 이후 계속되었다. 이덕희의 산문 <나의 생을 사랑해>에서 전해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는데, 이 두 낱말이 아마도 전해린이 가장 자주 입술 위에 떠올리는 언어였다고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전해린은 광기로서 권태를 극복했는데 그것은 천재들에게 때때로 나타나는 ‘섬광같은 창조적인 광기’라고 언급하였다.³⁶ 지속되는 권태와 그것을 극복해 나가던 천재는 결국 1965년 1월 어느 일요일 아침 31세의 너무나 아까운 젊은 나이에 생을 스스로 마감한다. 약물 과다복용이 자살의 원인이라고 전해진다. 그녀의 평소 행동과 유작에서 자살에 대한 동경을 언급한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긴 했었다. 그녀가 사망하기 사흘전에 이미 익명의 누군가에게 남긴 편지에 구조를 요청하듯 절규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 평론가 이어령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전해린에 관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어둠이 깔리는 박명(薄命)의 층계 위에서 그 여자는 기다리듯이 서 있다. 그에게 다가가는 이는 그 여자가 얼마나 얼마나 낮선 얼굴 속에서 놀라움의 눈을 뜨는 가를 볼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손님’인 것이다. 만나는 자리에서 그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한다. 그러나 서서히 친근해지는 그 어둠 속에서 불꽃처럼 무엇인가를 향하여 타고 있는 그의 눈은 모든 의미를 말하려고 한다. 그렇게 낮선 모습으로 어둠 가운데 불꽃처럼 타는 눈빛을 가진 전해린은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하다.³⁷

그녀는 여성 운동가도 아니었고 사회개혁을 부르짖는 혁명가도 아니었다. 사회에 대한 저항의식보다는 자신 내부의 문제 의식인 자의식과 가치 있는 삶에 대해 고뇌하고 투쟁한 존재였다. ‘절대로

³⁶ 전해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서 출판, 2004, p.306.(부록편)

³⁷ 전해린, 《이 모든 괴로움을 또 다시》, 민서 출판, 2004, p.266.

평범해서는 안 된다' 는 그녀만의 명제를 품고 벽을 넘어서기 위해 그리고 정신적인 초목지를 찾아 어떤 거친 길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처절한 노마디즘의 삶이 전해린의 해답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독일 유학 때부터 번역을 시작했다. 물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이었지만 번역작품들은 정확하고 분명한 문장력과 유려한 문체의 흐름으로 많은 독자들에게서 사랑을 받았다.

독일 문학 번역자로서 한국 문학계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했던 그녀의 번역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사강(Sagan,F.)의 《어떤 미소(1956)》, 슈나벨(Schnabel,E.)의 《안네 프랑크(Anne Frank)-한 소녀의 걸어온 길(1958)》, 독일 뮌헨대학의 한국인 교수인 이미륵(李彌勒)의 《압록강은 흐른다(Der Yalu Fliesst)(1959)》, 케스트너(KOstner,E.)의 《화비안(Fabian)(1960)》, 루이제 린저(Rinser,L.)의 《생의 한 가운데(Mitte des Lebens)(1961)》, 하인리히 뵐(Boll,H.)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Und Sagte Kein Einziges Wort)(1964)》 등 10 여편의 번역작품을 남겼다. 그밖에 수필집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1966)》와 《미래완료의 시간 속에(1966)》가 있고, 《이 모든 괴로움을 또 다시》라는 제목으로 1976 년 대문출판사에서 일기가 유작으로 출간되기도 하였다. 그녀가 살다간 시기는 이미 과거가 되었지만 전해린의 저서들은 지속적으로 재출판되어 오늘날의 독자들과 전설과 같은 모습으로 만나고 있다

제 3 장 三毛와 전해린 노마디즘의 동질성 연구

연구 대상인 두 작가가 가지고 있는 노마디즘의 동질성을 분석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작품속에는 자신들의 자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그들은 실제 삶의 모습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들의 작품외에도 지인들의 증언이나 학술연구자료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그들이 품고 살았던 노마디즘의 동질성을 정리하였다.

3.1 페미니즘이 아닌 노마디즘

첫번째로 언급하고자 하는 점은 이들의 동질성이 '페미니즘이

아닌 ‘노마디즘’이라는 것이다. 두 사람이 변함없이 실현하고자 했던 자의식과 관념은 보편적인 페미니즘과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노마디즘이다. 그 특징은 아래의 두 가지 원인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이 두 작가는 성장기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미 페미니즘의 승리를 넘어서 사람들이었다. 둘째로는 서양의 철학사상과 철학자들을 통해 여성으로서가 아닌 독립된 한 독특한 개체로서의 의식이 강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그로인해 남녀 불평등 시대에 살았지만 이미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거나 그 이상의 능력과 존재성을 인정받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과 원인이 두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자의식과 관념을 페미니즘으로만 규정할 수 없다. 오히려 정신적인 유랑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노마디즘의 동질성을 보이고 있다.

3.1.1 아버지의 영향으로 넘어선 페미니즘

이 두 사람은 아버지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았다. 놀랍게도 각각의 두 아버지는 매우 흡사한 캐릭터를 지니고 있었다. 일단 직업이 당시의 사회적 고위층인 법률가였고 자산가였다. 다시말해 상류사회의 최고의 지식인이자 재력가였다. 그런 배경에서 이들은 딸을 매우 풍족하고 우월한 상류사회의 환경속에서 양육했다. 더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남성우월주의가 팽배했던 두 나라의 전통적인 사회환경과 기득권층의 고정관념과 제약속에서도 아버지는 사회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딸을 위한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했다.

그래서 그 시기의 사회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여성의 몸으로 해외 유학을 감행할 수 있었다. 그러한 경험이 할 수 있었기에 외국 사회에서 남녀 평등과 인간 본질에 관한 진보적인 관념은 자연스럽게 터득되었다고 본다. 자신들을 믿어주는 아버지의 격려를 늘 등 뒤에 달고 다녔을 그녀들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요소가 바로 이것이었다. 아버지는 이미 그 사회에서 유능하고 당당한 인물로 자리매김을 한 사람들이었다. 그것은 그녀들에게 가장 큰 모델이고 멘토의 모습이었다. 유럽 대학에서의 유학생활동을 마치고 三毛나 전혜린은 페미니즘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한 인간으로서 남성들 보다 더 실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당시 앞선 문화로 각광받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던 유럽 특히 독일의 철학과 사상에 몰입되어 세상을 향해 미래지향적인 인식을 소유했다. 그리고 문학 작품으로 거침없이 표현했고 삶으로도 실천했다.

예를 들면, 三毛는 스페인의 7 살 연하의 남성과 결혼했다. 이것은 대 사건이었다. 당시로는 황당하고 타인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밖에 없는 결정을 내렸다. 어린 서양 남편을 따라 사하라 사막에서 신혼생활을 하면서 그곳의 원주민들과 유쾌하고 즐거운 생활을 작품으로 발표했다. 당시로선 상상조차 못할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삶에 많은 여성들과 젊은이들은 열광했다. 그녀가 글을 발표할 때마다 三毛의 열풍이 불었다는 것이 그 증거다.

또한 전혜린의 경우 26 세 라는 젊은 나이에 한국의 여러 명문대학 교수로 임용되었다. 그 시절의 학계나 교육계에서는 여성이 대학 교수로 강의하고 활동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런 사회적 환경속에서 매우 젊은 나이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여러 상위권 대학에서 독일 문학과 철학을 강의했다. 동시에 지속적으로 독일 문학 번역과 학술 연구를 발표하는 활약을 보였다. 물론 여기에는 보수적인 학계의 반대와 저항이 팽배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그녀가 가진 실력과 실제 문학 작품으로 보여주었던 결과물은 그녀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의 당당함은 페미니즘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실력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또 작가로서 사회에서 우뚝 서서 남녀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고독한 노마드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전혜린은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³⁸의 주인공 ‘싱클레어’와 ‘베아트리체’ 그리고 ‘데미안’에 이르는 여러 사람이 지닌 다양한 형태의 의식을 탐닉했다. 결국 새는 알을 까고 나오며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고 독백하고 있는데서 그녀의 속내를 충분히 알게 된다.

³⁸ 《데미안(독일어:Demian - Die Geschichte von Emil Sinclairs Jugend)》은 1919 년 독일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헤르만 헤세가 발표한 소설이다. 초기 기독교의 영지주의 문서 중 하나인 《필립의 복음서》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다. 저술한 소설로 오늘날까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필독서로 알려진 소설이다. (위키백과 참조)

결론적으로 이 두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와 역할 그리고 삶의 형태는 한 여성으로서 사회에서 여권신장을 위해 투쟁해 나가는 페미니즘을 넘어서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진정한 노력으로 만들어 낸 실력과 적극적인 발걸음을 통해 기득층의 관념을 뚫고 나가는 용기 있는 노마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두 사람 아버지의 전적인 후원과 뒷받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3.1.2 여성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

三毛의 1967년 떠났던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과 독일의 괴테협회 유학 시기는 인간 자체에 대한 철학적 인식과 관념이 활발했던 때였다. 또한 전해린이 독일 뮌헨 대학의 유학 시기는 三毛보다 좀 더 앞선 1955년으로 거의 동시대에 유학 생활을 했다. 그 당시는 근대사회와 현대사회의 전환기였다.

더구나 독일의 철학이 매우 각광받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던 때였다. 독일의 ‘카를 야스퍼스(1883~1969)’³⁹는 ‘철학은 개인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되어가는 내면 활동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간이 무엇이고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과정임을 주장했다. 실존에 대한 고민을 강조한 야스퍼스를 비롯하여 당시의 유럽 철학에서는 인간의 실존과 인간의 한계인 고통, 죽음, 갈등, 범죄 등의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인간의 실존이 해명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니체⁴⁰와 하이데거⁴¹ 그리고 사르트르⁴² 등 철학의 대가들이 활동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스페인과 독일 등 유럽에서 유학하고

³⁹ 카를 야스퍼스(Karl Jaspers, 1883~1969)는 독일의 철학자이다. 하이데거와 함께 독일 실존철학을 창시했다. 칸트, 니체, 키에르케고르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현대 문명에 의해 잃어버린 인간 본래의 모습을 지향했다.(위키 백과 참조)

⁴⁰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 ~ 1900)는 독일의 문헌학자이자 철학자이다. 서구의 오랜 전통을 깨고 새로운 가치를 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망치를 든 철학자'라는 별명이 있고 이로 인해 니체는 현대철학의 시작을 연 철학자로 평가된다. 그리스도교 도덕과 합리주의의 기원을 밝히는 작업에 천착하였고, 이성적인 것들이 기실 비이성과 광기로부터 기원했음을 주장했다.(위키 백과 참조)

⁴¹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 20세기 실존주의의 대표자로 꼽히는 독창적인 사상가이며 기술사회 비판가이다. 당대의 대표적인 존재론자였으며 유럽 대륙 문화계의 신세대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위키 백과 참조)

⁴² 장폴 사르트르(프랑스어: Jean-Paul Charles Aymard Sartre, 1905 ~ 1980)는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대표적인 실존주의 사상가이며 작가이다. 1964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으나 수상을 거부하였다.(위키 백과 참조)

생활했던 이 두 사람의 사고와 생활에 이러한 철학 사상이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들의 작품과 자의식 속에는 이 유럽의 철학 특히 독일 철학의 관념들이 녹아있음을 보게 된다. 이는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은 사고를 하게 했고 더 나아가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장벽을 넘어서 가야만 하는 인식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을 결국 노마드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는 충만한 배경이 되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三毛와 전혜린은 엄격했던 남녀 불평등 시대의 특별한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해외유학은 성별을 초월하여 이미 극소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었다. 게다가 스페인, 독일 그리고 그 외의 유럽과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을 여행하고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며 그 지역의 문화와 삶을 체득하는 경험을 했다. 이것은 실제 자신들의 조국이 속해 있는 동양에서의 삶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기에 자신의 나라에 살고 있는 또래의 어떤 남성들보다 넓고 다양한 식견과 경험을 소유할 수 있었다. 더구나 그들의 의식과 학문적 능력은 누구보다 뛰어났고 실제 그러한 결과물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미 대중에게 선보인 문학 작품에 대해서는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선망의 시각으로 갈채를 받고 있었다. 또한 교단에서의 강의 능력과 끊임없이 다른 나라의 문학을 소개하는 일들은 당시의 어떤 남성들 보다 앞서 있고 뛰어났다. 그들이 번역한 문학의 원본과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했기에 번역자체도 매우 생동감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지닌 두 사람은 당시 사회의 주류를 이루던 남성의 지위와 동등했고 오히려 그 보다 뛰어난 평가와 인정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당당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고 볼 때 페미니즘만을 부르짖을 생존적 필요가 없었다. 물론 편견과 불평등의 시각이 존재했지만 그것을 뛰어 넘는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있었기에 그들은 차라리 여권 신장을 외치는 자리에서 더 앞서 나아가 자신들 스스로 자의식과 현실의 괴리에서 싸우고 헤쳐나가는 유량 정신을 항상 두 손에 들고 있었다.

3.2 시대를 뛰어 넘은 노마디즘

두번째로 이들이 사유했던 동질적 노마디즘의 특징은 자신들이 살았던 ‘시대를 뛰어 넘어 근 한 세기 이상을 앞섰다’는 점이다. 그들이 발표한 작품 속에 나타나는 노마드 특성의 실제적 내용을 보면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미 유럽에서의 유학 생활을 통한 서양의 선진 문화와 사상을 접하고 또 그것을 실존적인 측면에서의 결과물임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그들이 태어난 가정이 매우 부유했고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접해보지 못한 앞선 문화를 누렸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많은 외국인들을 접하면서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서양 사람들의 삶과 관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요소를 지닌 그들의 노마디즘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아도 전혀 구태의연하지 않은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지닌 두 작가가 보여주는 시대를 앞서간 노마디즘의 동질적인 배경과 특성을 더 자세히 살펴본다.

3.2.1 서양의 선진문화와 사상을 습득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성장기에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난 三毛였지만 그의 학창시절은 매우 힘들고 고통의 연속이 시간이었다. 아버지의 사사를 받고 청소년기를 보내던 그녀에게 스페인의 유학은 하나의 돌파구였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생활은 행복한 추억의 시절이었음을 <유럽여행 견문록>이라는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녀는 이 글에서 스페인은 내 마음 속에 일종의 특별한 애정과 향수로 자리 잡고 있어 나를 이곳으로 다시 이끌었다고 애정을 나타냈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유학 이후 다시 찾은 유럽에서 그녀는 노천 카페와 지하철 그리고 유럽의 다양한 모습들을 느끼고 애착을 가졌다. 스페인의 마드리드뿐 만 아니라 파리, 시카고, 베를린 등 타국의 여러지역에 머물렀거나 여행하면서 이미 선진화된 문화와 사상을 접했다. 그녀의 인식과 사고 속에는 당시 낙후되었던 동아시아에 속한 중국에서의 삶을 답답해하고 버거워했을 것이다. 수 십 년을 앞선 서구 문화에 흡수된 경험을 가지고 있던 그녀는 공간과 시간을 넘어 앞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미 내재화된 노마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혜린의 경우도 대학 3 학년까지 한국 최고 명문대학인

서울대학교 법대에 다녔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마치 앉은 자리를 탈출하듯이 독일로 유학을 갔다. 거기에서 ‘루 살로메’와 연인 ‘니체’를 알게 되고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사랑과 시를 접하면서 독일과 유럽의 사상과 생활 방식에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그녀의 문학 작품을 통해 알게 된다. 그리고 취리히, 도나우강 등 유럽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유럽 청년들이 누리는 삶의 방식과 사상을 만끽했다. 중국의 三毛와 마찬가지로 아직 현실적 상황이 서양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한국에서 떠나 자유분방하고 다양함을 인정하는 독일에서의 유학생생활은 이미 시대를 앞서가는데 좋은 정신적 양분이 되었다. 그녀의 글에 뮌헨대학과 슈바빙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귀국 후에도 늘 그곳을 그리워하는 모습도 작품에서 찾아보게 된다. 실제로 주변의 지인들의 증언에서도 서양의 발전된 문화와 생활을 경험하고 돌아온 전해린이 한국의 현실에 부딪치면서 이전의 유학생생활을 많이 언급하고 그리워했다고 전해진다. 결국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유럽의 젊은이들 속에서 만족하고 탐닉했던 그 경험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현실에서 좌절되고 그 상황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전해린의 자의식은 늘 고통스러워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은 유럽에서의 유학생생활, 문화가 발달한 서구 여러 나라의 여행 그리고 사하라 사막과 같이 극단적으로 색다른 환경에서의 삶들이 의식과 행동양식에 내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적응하면 살았던 유랑민과 같은 처절한 적응력이 생성되어 있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그런 요소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살아내는 일에는 오히려 좌절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로 인해 자의식에 의해 현실과의 괴리에서 유랑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곤 했다.

3.2.2 성장기에 획득한 경험

두 사람의 성장기에 획득한 경험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노마디즘적 성향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그들의 또래가 누렸을 시대적 환경에서 아주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고급스러운 문화와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동년배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삶의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성질의 것이었다. 더구나

여성에 대해 불평등적인 통념을 지닌 당시 사회속에서 가정의 최고 결정자인 아버지의 절대적인 지지를 통해 질 좋은 교육과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자신들의 세대에 남녀를 불구하고 앞서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가정이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상류층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면에서 앞서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변호사였던 三毛 그리고 당시 수재로 인정받던 법관을 아버지로 둔 전해린이었다. 그 당시 그들은 구하기 어려운 서양의 문학 서적에 심취했고 서양 음악과 악기를 익히기도 했다. 구경조차 할 수 없었을 스케이트를 타기도 했고 서양인형 같은 원피스를 맞춰 입었고 아이스크림을 먹기도 했다는 경험들은 작품속에서 늘 회자되었다. 이는 단지 발전되고 시대를 앞서가는 서구의 문화를 접한 것뿐만 아니라 그 문화와 생활의 모습을 누리면서 발전된 서양 사람들의 사상과 우월감까지도 가졌다고 본다. 이 성장기의 배경이었던 부유하고 상류사회에 속한 환경은 三毛나 전해린의 시대를 앞선 사고를 배양하는 양분이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추구했던 노마디즘에는 누구보다 앞서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결단이 좀 더 쉬웠다고 추정된다.

3.2.3 현실을 넘어선 미래의 비전

당시 독일은 유럽 문화의 중심지이었다. 철학과 문학 그리고 음악의 중심지였던 독일 사람들과 그곳에 유학을 오거나 여행을 온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의 다양한 접촉과 교제를 통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적 호기심과 유량적 DNA 는 시공간을 넘어 더 넓은 곳으로 나가려는 힘을 길렀다고 본다. 또한 스페인,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주변의 여러 나라를 돌아보고 그 문화와 문명을 직접 체험하고 감상하면서 이 두 사람은 각기 자신의 나라에서 살던 삶과는 다른 미래를 경험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에서의 색다른 경험 또한 이러한 것을 뒷받침 해 주는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고국의 자신이 속한 사회가 추구하는 미래의 모습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 사회구성원 보다 더 진보적으로 미래에 대해 바라볼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들이 만난 외국 사람들과 접촉을 통해 더 앞선 비전을 공유했기에 가능했다. 三毛의 이러한 경험 중에서 한 예를 들어본다. 사하라 사막 한

가운데서 원주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겁고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사하라 이야기》라는 작품집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 있다.

12 편의 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하라 이야기》에서는 무섭도록 적막하고 황량한 사하라 사막에서의 생활이 유쾌하게 그려져 있다. 힘들고 낮은 일들을 마치 모험과 신비로움을 가득한 일들로 받아들이는 그녀의 용감함과 긍정적 생각을 접하게 된다. 그 삶의 모습을 매우 신선하고 생동감있게 써 내려갔다. 또한 원주민인 사하라 사람들의 결혼, 생일 또는 전통적 풍습이나 인습 등을 그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개했다. 이 속에서 그녀는 유럽에서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삶과 문화뿐 만 아니라 광활한 사막에서의 이질적인 생활 조차도 거침없이 헤쳐나가는 유랑민의 강력하고 개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유목민의 개척적인 사고를 지니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문화권과 환경 속에서 많은 좌절과 절망을 느꼈을 것이다. 단적으로 이러한 면모만 보아도 그녀가 가진 노마드로서의 기질을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경험이 미래에 대한 비전의 한 구성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전혜린의 경우도 비슷하다. 5 년간의 독일의 유학생생활에서 주변의 이웃들과 동료학생들이 생활과 공부하는 모습에 어울리면서 그들과 동등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유학생으로서 대부분의 동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궁핍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부유했던 시절과는 다른 색다른 관념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그녀는 사고의 부유함을 누리는 경험을 했다.

또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서구의 관념을 충분히 배워냈다. 예를 들면 그녀의 글 <열쇠 아동, 기타>에서 독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적었다. 당시 독일 사회의 발전으로 맞벌이 부부가 많았다. 그런 사람들의 자녀에 대한 문제의 이슈로 ‘열쇠 아동’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 이야기를 적고 있다. 또한 <3K 주의(아이, 부엌, 교회)>라든가 <스파르타식 교육>, <주택에 관한 개념>, <혼자 있지 않기 위해서> 등의 글에서 독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전하고 있다.⁴³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때도 독일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따라갔다. 한 이웃에 사는 산모에게 출산을 축하하려고 꽃을 한송이 사서 선물하기도 했다. 뮌헨 슈바빙의 가을이면 그곳의 가난한 예술가들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 그러면서 그들로부터 서구의 문화를 향유하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터득했다. 더구나 딸 정화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로서 더욱더 독일 주부의 삶에 공감하였다. 그러한 것들을 낙후한 조국 한국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이었기에 전혜린에게는 앞서 살아가는 일이 자연스러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근거가 그녀의 수필집 여러 곳에서 문학의 열매로 남아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들과의 공유해 본 삶을 통해서 그녀들은 앞선 노마드의 사고와 행동을 감행할 수 있었으리라 본다. 무엇보다 이미 많이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는 것은 큰 용기와 결단의 힘이 되기 때문이다.

3.3 강력한 열망과 삶으로 써 내려간 노마디즘

세번째 동질성을 언급하면 ‘강력한 열망과 삶으로 써 내려간 노마디즘’이다. 앞서 언급한 두 사람의 동질적 노마디즘의 원인과 배경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들은 부유한 상류층 가정에서 성장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각별한 관심이 있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자랐다. 그리고 많은 외국생활의 경험과 서구의 선진적인 삶의 방식과 사유의 풍성함을 배우고 누려본 사람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살았던 동양의 보수적이고 개성을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의 한 일원으로 돌아가기에는 어려운 일이었다.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뛰어난 사유의 능력과 자의식에서 출발한 삶의 질은 주어진 현실의 환경에서 뿌리 내리고 살기에는 너무 가혹한 것일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주어진 삶과 통념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강력한 열망과 삶을 추구하려는 유량을 멈출 수 없는 노마디즘의 동질성을 나타낸다.

⁴³ 전혜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서 출판, 2004, p.p 158~165.

3.3.1 멈출수 없는 자의식의 도전

三毛는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독서를 좋아했고 지나치리만큼 책의 내용에 빠져서 헤쳐나오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그것은 자신 내부의 의식세계를 구축하고 확장해 갔다. 그리고 때때로 자신이 가진 그 자의식이 주변 현실에 대립되어 그 결과로 자폐적 성향까지 생기기도 했다. 더구나 성인이 되어 여러 비극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 나가야한 하는 몸부림을 쳐야 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진 의식세계를 지켜내려는 도전의 연속이었다. 다행히 그녀는 매우 유쾌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무모하리만큼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

그 후 외국에서 일하는 경험과 여러 나라의 여행들을 통해 점차 자의식은 생활 속에서 활력소로 녹아 내렸다.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도전의 삶을 이어나가는 힘이였다. 그래서 스페인, 독일, 미국, 결혼 후에는 남아프리카 사하라 한 귀퉁이에서도 살아갈 힘이 되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열광을 받은 三毛문학의 많은 모티브가 되었다. 이것은 멈출 수 없는 그녀의 강력한 열망과 도전 정신이 가져다 준 노마드의 열매였다.

전혜린은 자의식에 대한 고백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중학교 시절에 죽어도 평범한 인간이 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지금껏 어느 마녀의 저주같이 따라다니고 있다. 나는 그렇게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자전적인 수필인 <긴 방황>이라는 글에서 고백한 바가 있다.⁴⁴ 또한 다음과 같이 마음의 한 부분을 내 보이기도 했다.

그리움과 먼 곳으로 훌훌 떠나 버리고 싶은 갈망, ‘바하만’의 싹귀처럼 ‘식탁을 털고 나부끼는 머리를 하고’ 아무 곳으로나 떠나고 싶은 것이다. 먼 곳의 그리움(Fernweh!) 모르는 얼굴과 마음과 언어 사이에서 혼자이고 싶은 마음! 텅 빈 위와 향수를 안고 돌로 포장된 음습한 길을 거닐고 싶은 욕망. 아무튼 낮익은 곳이 아닌 다른 곳, 모르는 곳에 존재하고 싶은 욕구가 항상 나에게서 있다 …(중략)… 노래와 모닥불 가의 춤과 사랑과 점치는 일로 보내는 짧은 생활, 짧은 생. 내 혈관 속에는 어쩌면 집시의 피가 한 방울 섞여 있을지도

⁴⁴ 전혜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서 출판, 2004, p.124.

모른다고 혼자 공상해 보고 웃기도 한다.⁴⁵

이렇듯 작품을 통해 본 그녀의 자의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타고난 방랑의 피를 타고 난 것이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더구나 남들과 달라야 한다고 자신을 채찍질 하며 지속적으로 미지를 향해 달려 나가려고 하는 내면의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년이 되어 가면서 자신의 지독한 자의식과 현실간의 대립을 이루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는 열망과 도전이 계속 되었다. 그 힘으로 독일 문학을 번역했고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끊임없이 일기를 쓰고 수필로 그 도전의 내용을 적어나갔다. 이것은 박제와 같은 문학이 아니라 살아서 꿈틀거리는 열망과 인식이 가득한 글을 쓰는 노마드의 힘이었다.

3.3.2 유랑에 함께한 전폭적인 지지자

두 사람의 이러한 삶의 방식과 과념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격려하고 인정해 준 지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통념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파격적이고 지나치리만큼 진취적인 생활 모습을 가진 그들이었다. 게다가 그것들을 문학 작품으로 표현해 내는 것은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었다.

三毛의 7 살이나 연하의 스페인 남편 호세가 바로 그러한 지지자였다. 초등학교 시절에 만났던 연상의 중국 여인에게 성년이 된 후 다시 찾아와 청혼을 했던 호세는 전폭적으로 아내를 지지하고 용기를 주었던 사람이었다. 물론 그녀의 성장 과정에서는 부모와 좋은 스승들이 있었지만 작품 활동을 하고 노마드의 삶을 풍족하게 해 주고 동조해준 동지는 바로 사람이었다. 결혼 5년만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으로 인해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작품을 통해 읽어낼 수 있다. 이는 절대적인 지지자를 잃은 三毛의 슬픔이 그 존재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

⁴⁵ 위의 자료, p.p 116~117.

전혜린의 경우 친동생인 전채린이 언니를 향한 격려와 신뢰가 큰 힘이 되었다. 그녀의 작품에서 동생 채린은 자주 등장한다. 독일 유학시절에 동생의 편지와 그 격려를 묵마르게 기다리는 내용이 작품 속에 기록되어 있다. 더욱이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면 늘 위로가 되었던 채린의 편지를 고대하는 그녀의 모습속에서 동생으로부터 전해오는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귀국 후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딸을 키우는 과정에서도 동생의 후원과 지지는 계속 되었다. 두 사람의 편지를 모은 글에서 보면 마치 탯줄로 이어진 것 같은 착각마저 갖게 한다. 결국 전혜린의 사망 후 언니의 일기와 편지 그리고 수필을 모아 유고집을 만들어 내는 영원한 지지자가 바로 동생 전채린이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동생 ‘테오’의 전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온 세상은 알고 있다. 이처럼 三毛와 전혜린이 힘들고 험난한 인생길에 그러한 후원자가 있었기에 강력한 그녀들의 열망과 삶으로 노마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이들 외에도 많은 독자들과 지지자들이 보내주던 갈채와 공감대가 이 두 사람의 삶의 끈을 지켜주는 힘이 되었다.

현실에 안주할 수 없는 정신적인 방황과 끊임없이 닥치는 불행속에 그녀들의 특별한 사유방식과 삶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사회 현실에 뿌리내리기 어려웠다. 그로 인해 그녀들이 찾아낸 극복과 회복을 위한 유량은 계속 되었고 그것이 문학적인 결실로도 남게 되었다. 이렇듯 두 작가의 생애와 작품 근간에 흐르고 있는 정신세계는 동질적인 인식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녀들의 유량은 지지자들이 함께 했기에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본다.

3.4 자살로 멈춰 버린 노마드의 길

자의식과 그것을 살아내야 하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대립이 크면 클수록 인간의 삶은 좌절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그 시대를 앞서 달려가는 그녀들의 천재성을 지닌 자의식은 보편적인 사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시각마저 갖게 한다. 그리고 달려나가는 그녀들의 좌절을 기대하는 기득층들의 통념은 이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 이 두 사람이 사실 그런 장벽에 늘 맞서야 했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비명처럼 썩 내려간 자의식과 현실의 대립각에 대한 글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해준다. 더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이별 그리고 서 있는 것조차 힘든 사회의 통념들이 쉬지않고 이들을 자극하고 고통으로 밀어넣었다. 그럼에도 그것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려는 피나는 노력과 고단한 삶은 불모지와 같은 사회 속에서 조용히 심겨진 조그만 씨앗이 되어 자라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투쟁과 지속적인 유랑의 삶은 자살이라는 마지막 선택으로 멈춰서고 말았다. 三毛와 전혜린의 노마드로서의 숨가쁜 좌절과 극복 그리고 또 좌절과 극복의 생의 여정은 지친 그들을 죽음이라는 선택을 하게 했다. 저쪽 한 편에서는 그들이 뿌리고 키워내던 유랑적 결단과 도전에 대한 짝은 자라나고 있었지만 당사자들은 가장 최후의 선택을 자살이라는 행동을 통해 투쟁의 막을 내려버린 것이다. 죽음마저도 같은 모습으로 그녀들에게 다가왔고 이것이 두 작가의 동질적 노마디즘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것은 매우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결정이었다. 고독한 자신과 현실의 괴리속에서 지속되는 불행과 고통의 몸부림을 했던 삶이었다. 그 고통을 멈추기 위해 내려버린 결단이었지만 방법은 비극적이라 하겠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노마드의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본다.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은 그녀들을 따르고 열광했던 젊은이들과 독자들에게 많은 실망과 아픔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어려움과 고통속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모방적 행동을 제시하는 부정적인 모델이 될 수도 있기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한다.

제 4 장 동질성에 가려진 이질성 분석

이제까지 두 작가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삶을 통한 노마디즘의 동질성을 분석해 보았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의식과 삶에서 드러나는 많은 동질성이 있음에도 독특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을 눈여겨 보게 한다. 비슷한 자의식과 열망을 가진 두 사람이지만 그 내면에 깊숙하게 자리잡았던 이질적인 부분에는 낙관주의적인 사고와 염세주의적 특성을 지닌 사고가 각각 자리잡고 있었다.

또한 외유내강(外柔內剛)과 내유외강(內柔外剛)의 비교가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노마디즘의 실현에 대한 이질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까지 동질성에 가려진 이질성들을 분석해 본다.

4.1 낙관주의와 염세주의

三毛에게서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면이 쉽게 드러난다. 자신의 삶을 여과없이 직설적으로 써 내려간 작품에 그러한 표현이 가득하다. 반면 전혜린은 강한 자의식 자체가 허무주의에 가까운 성향을 보인다. 물론 삶에 대한 애착과 열정이 가득했지만 그 내면의 한 부분을 정의 하자면 허무주의의 면모를 알게 된다.

그녀의 작품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이 여인의 긍정성과 낙관성에 웃음이 절로 나며 통쾌함까지 느끼게 한다. 물론 어린 시절 자폐성향으로 공교육 틀에서 벗어나야 했고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한 경력이 있다. 그럼에도 주어진 환경과 그 상황을 마주하는 태도는 이상할 정도로 낙관적이다. 예를 들면, <털보와 나>라는 수필에서 그녀의 이런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집안일을 잘 도와주지 않는 남편(작품에서 남편을 털보라고 칭함)의 투덜거림에 이렇게 적었다.

그때는 정말 큰 꽃병을 하나 들어서 그의 머리에 내리치고 싶었지만, 꽃병이 깨지면 또 내가 청소해야 되고, 머리에 명중한다는 보장도 없으니 그냥 말아버렸다. 세상 어떤 여자라도 보통 큰 맘을 먹지 않고서야 집안일은 너무나도 귀찮은 일이다. 하지만 아예 손 놓고 수수방관하자면 또 마음이 섭섭한 것이 정말 이상한 일이다. 이런 심리는 참 이상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⁴⁶

이 속에는 부부 싸움을 하는 가운데 생기는 에피소드를 긍정의 힘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재미있게 드러난다. 또한 《유럽여행 견문록》⁴⁷에서는 영국 공항에 내렸을 때의 경험을 적었다. 자그마한 한 동양 여성을 향해 거만하게 대하는 영국 이민국 직원들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나는 최대한 스스로를 통제하려 노력했다. 일단 심사를 통과하고 난 후에 그를 욕해도 늦지 않다. 나는 최선을 다해 그가

⁴⁶ 이혜영, <三毛小说选译>,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43.

⁴⁷ 위의 자료, p.p 17~18.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오해하지마요, 내가 비행기 티켓과 스페인 비자를 보여드릴게요. 나 아주 바빠요. 통과하게 해 주세요.”⁴⁸

이런 모습은 그녀의 삶에 대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대변해 준다고 하겠다.

반면에 전혜린에 관해 대부분의 문학 평론가들은 그녀를 염세주의자라고 평하고 있다. 살아온 흔적이 염세적인 부분이 많았고 독일 철학이 주는 영향도 있었다. 당시에 혼치 않았던 이혼과 사회생활 속에서 겪어내는 좌절이 타인의 눈에는 충분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젊은 나이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 그녀를 염세주의 만으로 평가하려 한다. 사실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다. 전혜린의 작품 속에는 三毛와 비슷한 외국생활의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녀가 내뿜고 발산하는 유쾌함과 다르게 전혜린에게서는 내적인 인내와 절제의 모습이 자주 드러난다. 특히, 가난한 독일 유학 시절에 궁핍이 지속 되면서 그녀는 스스로 욕구를 절제하고 인내와 좌절을 선택하는 어린 시절부터의 습관이 내면화된 듯 하다. 예를 들면 <지나간 시절의 미각>에서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의 이런 모습을 적고 있다.

‘나는 지극히 스파르타적이고 상무적 고구려적 환경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스토아적 육체, 물질의 경멸과 정신의 숭상을 가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음식물과 연결된 감미로운 유년기의 추억이란 나에게서 없었다. 계몽주의의 숭배자이고 금욕주의자였던 나의 양친도 내 유년기로부터 설, 추석, 대보름 등의 단어를 말살해버렸었다. 그렇게 자라난 나는 자연히 음식을 경멸하게 되었고 소식과 불면을 중학교 때부터 지켜왔었다.’⁴⁹

여기에서 우리는 독특한 그녀의 태도에 대한 원인을 접한다. 이것은 점차 다른 일들을 접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듯 하다. 또한 그녀는 독일 철학과 개인적으로 추종하던 작가와 작품속 주인공들과의 공감을 통해 허무적인 생각과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스스로도 사람들을 만나면 입버릇처럼 삶에 대한 권태를

⁴⁸ 위의 자료, p.56.

⁴⁹ 전혜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서 출판, 2004, p.p 141~142.

말했고 작품 여러 곳에서도 그런 암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그의 지인들의 평가이다.

전혜린은 이런 염세적 요소를 다소 지닌 사람이었지만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도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을 여기서는 ‘긍정적 염세주의’라고 정의하려 한다. 그러한 예를 표현한 글들을 옮겨 본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수필집에서 그런 내용을 발췌한다. 그 책의 첫 머리 서언을 쓴 박인수는 <사색과 예지의 양식>이라는 글에서 독일에서의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는 문인으로서 때로는 염세적인 말도 하고 또 글도 쓰나 실상은 매우 생활 의욕이 강했다고 한다고 말했다.⁵⁰ 전혜린의 친동생인 전채린의 글에서도 이런 면모를 볼 수 있다. <나의 언니 전혜린>이라는 글에서 언니의 생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끈기와 탄력과 집중력과 결단성을 갖고 언니는 생을 긍정했다. …(중략)… 또한 언니의 생은 자기의 모든 것을 (지식과 정열과 그리고 사랑을) 모든 이에게 쏟아 부은 일생이며, 꿈과 기쁨과 괴로움이 터질 듯이 팽팽하게 찬 일생이었다.⁵¹

이렇듯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극과 극의 감정과 어린 시절부터 습관처럼 되어 있던 절제와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이 염세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게 했지만 반면에 생에 대한 강한 애착도 있었음을 분석하게 된다.

4.2 외강내유와 외유내강

앞서 다룬 바와 같이 내면의 낙관주의와 염세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두 사람이 지닌 이질적인 면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와 같은 삶을 대하는 시각과 의식 세계가 작품에 잘 드러나 있다. 이는 다시 성품과 삶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관건이 되었다. 이 두 사람은 동질적이 노마디즘의 성향이 나타나는 반면 일부 이질성이 작품의 내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볼 수 있다. 즉

⁵⁰ 위의 자료, p.p 4.

⁵¹ 위의 자료, p.p 9~10.

외강내유(外剛內柔) 그리고 외유내강(外柔內剛) 라고 하는 성품적 특징을 통해 두 사람의 동질성에 감추어진 이질성을 분석했다. 이 어휘들은 읽는 순간 서로 매우 상반된 특성을 가진 성품이라는 점을 바로 깨닫게 된다. 그만큼 이 용어가 가지는 각각의 특징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작품 속에 나타난 삶을 대하는 태도와 성품에 대해 분석했을 때 이러한 면모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외강내유(外剛內柔)의 인물은 三毛다. 앞에서 언급한 그녀의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러한 성향의 증거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면 그녀의 수필집 《사하라 이야기》와 《흐느끼는 낙타》에 실려있는 여러 작품 속에서 주인공 三毛는 강철같이 단단하고 용맹한 모습으로 등장하곤 한다. 조그만 동양여자를 무시하는 서양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무장한 군인들 앞에서, 그리고 사나운 남아프리카 원주민 남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씩씩하게 맞선다. 스페인 남자와 함께 여행하는 자신에게 부부증서를 보이라며 방을 주지 않던 여관주인에 대한 분노는 대단했다. 더구나 연하의 외국인 남편 앞에서 보수적인 스페인의 생활 방식을 요구할 때는 마치 무서운 선생님이 학생을 대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이것은 어찌 보면 매우 강인하고 두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성격의 인물임을 알게 한다.

하지만 그녀의 속내는 그렇지 않았다. 중학교 시절 선생님의 별에 대해 무너진 어린 마음은 자폐적 행동을 가질 수 밖에 없게 하였다. 약혼자의 죽음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해외 여행 중에 동양인을 무시하는 서양인들로 인해 자신도 궁지에 몰려있었지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힘써 돕는 모습도 있었다. 더구나 카나리아 제도에 살 때에는 온 동네 아이들과 노인들의 힘들어 하는 모습에 자신의 차를 공용의 차와 같이 제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앞에서 작품을 통해 언급했다. 이와 같이 三毛는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강한 행동과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면에는 매우 어린 품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한다. 그리고 동정과 인정에 따라 행동하는 부드럽고 따스한 감성을 지녔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로인해 약자였던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매우 사랑스러워 하고 좋아했다. 이와 같은 근거를 통해 그녀는

외강내유의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외유내강(外柔內剛)의 성품의 특징을 보이는 것은 전해린이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제공되는 교육과 진로의 결정에 저항없이 따라야 했다. 마치 숙명인 것처럼 받아들이며 조용히 순종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녀가 성장한 후에도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예를 들면, 독일 유학의 궁핍 속에서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걸 즐기려는 사고의 전환을 애쓰는 모습은 내면이 강한 사람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외국 학생들과의 관계속에서도 스스로 절제하며 그들과 대립하지 않는 성품이 나타난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속에서 내면의 실력을 기르고 그 순간을 더 누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측은할 정도로 강렬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주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들이 자신의 글 속에서 잘 드러나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강인한 내면의 세계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유학시절에 낳은 딸에 대해 헌신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음에도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단호했다. 이혼 문제에 있어서 전혀 주저함 없이 결단을 내리고 있다. 새로 만나 뜨겁게 사랑하던 연하의 연인으로 인해 늘 애타게 맘 졸이다가도 남자의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별을 통보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모습이 작품 속에 드러나 있다.

이처럼 단호한 결단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다. 한국으로 돌아와 교직에 있으면서 육신의 연약함과 정신적인 고통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속에서도 약속한 것들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쟁겼다.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상황 속에서도 늘 명확한 문제 해결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일에 있어서도 그랬다. 이미 약속된 강의나 독일 문학서적 번역에 대한 것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해 나가는 강력한 의지를 보게 된다. 지인들과의 서신에서 그러한 내용을 찾아보게 된다. 이는 내적으로 철두철미한 사람이 바로 전해린이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전해린의 성품은 26 세의 젊은 나이에 한국의 명문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할 수 있는 저력과 근간이 되었다. 그리고 5 년이라는 짧다면 짧은 유학 기간 동안 배운 독일어와

견고해진 문학 이론으로 10 여 권의 책을 번역하고 출판하여 번역문학의 입지를 굳혔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소화해 내기 어려운 결과였다. 당시 그녀가 번역한 작품들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인쇄되어 다양한 독자들을 찾아가고 있다. 전해린이 가지고 있던 외유내강의 성품은 이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힘이었다.

동질성에 비교가 되는 그녀들 작품에 드러나는 이질적인 면모를 살펴보았다. 비슷한 유랑자로서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드러나는 동질성 내면에는 서로 다른 인간이기에 찾아볼 수 있는 상극적인 이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성향의 면모를 소유한 채로 유랑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작품에 드러나는 노마디즘의 동질성이 너무나 뚜렷하게 부각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결론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고는 두 작가에 관한 비교 연구다. 그들의 작품에 나타나는 관념과 자의식의 특성이 가지는 동질성을 분석했다. 또한 문학으로 표현된 작가들의 독특하고 결단력 강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고찰했다. 그 과정에서 연구 대상인 두 작가의 작품에 흐르는 자의식과 삶의 방식이 매우 독특하고 동질적 부분이 많음을 발견했다.

그녀들은 자신들이 살아야만 했던 현실이라는 장막과 족쇄와도 같은 사회적 통념과 고정관념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게 된다. 그래서 자신들이 익숙했던 곳에서 생소함이 가득한 낯선 곳으로의 유학을 선택했다. 그 과정에서 동양의 어린 여학생이었던 그들이 서양의 진보되고 개방적인 사고를 지닌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주눅들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다. 이러한 삶을 대하는 방식은 조국으로 돌아와 스스로 그들 삶을 마감하는 날까지 지속되었다. 이것이 노마디즘의 실천을 끊임없이 구가했던 실제적인 사례라고 규정할 수 있다. 분명 그것은 보편적인 페미니즘을 초월한 더 강력한 정신세계이다. 강력한 도전의 정신 즉 노마디즘이 구체적인 삶과 문학으로 구체화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작품을 통해 본 삶은 끝없는 육체적, 정신적

유랑의 실체였다. 끝없는 방랑 그리고 현실과의 투쟁인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다. 물론 이성간의 사랑이라던가 딸의 탄생으로 인한 소소한 즐거움 순간의 행복도 있었지만 그보다 앞선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그리고 천재적 자의식과의 대립이었다. 그 유랑 속에 만나는 많은 장벽들에 대한 극복이 계속되었지만 결국 삶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자신의 생명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어떤 선택보다 큰 것이었다.

오히려 그것은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서야 하는 것이 그녀들다운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극단적인 결단은 안타까운 것이다. 또한 이 결과는 독자들과 대중들에게도 부정적이며 좌절의 하나였으리라 본다. 왜냐하면 두 작가의 의식에 공감하는 많은 독자들에게 좌절감과 허탈함을 주는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이 환호하고 열광했던 三毛와 전혜린의 관념과 도전의식이 표현된 여러 작품과 삶을 대하는 방식들은 때로는 누군가에게 희망이었고 이상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그 두 뛰어난 작가들 오랫동안 우리들 곁에 있었다면 더 풍성하고 다양한 작품들을 세상에 선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빚어지는 삶에 대한 더 심오하고 다양한 사색들과 탐닉들이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작품들이 세계의 더 많은 젊은 세대에게 지속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들을 실패자라고 무작정 비난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들만의 자의식과 삶을 붙들고 그것을 몸으로 살아낸 유목민적인 삶은 누구나 쉽게 선택하고 실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녀들의 삶의 방식과 의식세계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사회적인 냉대와 눈총 그리고 물이해로도 막지 못한 자신들만의 파격적인 선택과 삶을 살았던 인간적 용기와 도전에 대한 의지는 큰 가치로 인정받아야 한다.

철학자 조성오는 자신의 저서에서 통념이 주관하는 상식적인 사고와 미지의 세계로 나갈 때의 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식적 세계관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상식적 세계관은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서 죽을 때까지 산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새로운 곳에서 생활하거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때 또는 일관된 생활을 하려 할 때는 상식적 세계관으로 충분하지 못하다.⁵²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획일화되고 구조화된 의식 즉 상식적 삶을 벗어나 남다른 자의식을 가지고 유목민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三毛와 전혜린의 작품과 그 속에 살아있는 그녀들의 삶이 남기는 메시지는 매우 강하다. 즉 막다른 길 앞에서 무조건 두려워하는 나약한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길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또 하나의 삶을 사는 방법이고 선택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단단한 빗장을 풀고 문을 열어 그 길을 보여준다.

그렇게 앞서서 달려나갔던 그녀들이 있었기에 ‘유랑의 실현’을 품고 가는 21세기 노마드들은 오늘도 그녀들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한다. 그래서 벽돌로 살것인가 아니면 벽을 허물것인가라는 명제에 대한 결단은 오늘도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⁵² 조성오, 《철학 에세이》, 도서출판 동녘, 2013, p.34

참고문헌

1. 단행본

중국

- [1] 김명숙, 비교문학의 이론과 실제, 중국: 민족출판사, 2014
- [2] 三毛, 雨季不再, 北京: 北京十月文艺出版社, 2011
- [3] 三毛, 稻草人手记, 北京: 北京十月文艺出版社, 2011
- [4] 三毛, 撒哈拉的古事, 北京: 北京十月文艺出版社, 2011
- [5] 김호웅, 문학비평방법론,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2002

한국

- [6] 이어령, 언어로 세운 집, 서울:아르테, 2015
- [7]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수정판), 서울: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 [8] 프로이트 지음, 김기태 옮김, 꿈의 해석. 서울:선영사, 2014
- [9] 조성오, 철학 에세이, 서울:도서출판 동녘, 2013
- [10]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민음사, 2013
- [11]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 서울:민음사, 2012
- [12] 이선영, 문예사조사(고전주의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서울:민음사, 2012
- [13] 한창수외, 중국문화개관,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2010
- [14] 정도상, 그 여자 전해린, 서울:두리 미디어, 2010
- [15] 삼모, 사하라 이야기 (撒哈拉的古事): 싹마오 산문집, 서울:막내집게, 2009
- [16] 삼모, 흐느끼는 낙타 : 싹마오 산문집, 서울:막내집게, 2009
- [17] 김경란, 프랑스 상징주의.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 [18] 한형곤 외, 문예사조, 서울:새문사, 2005
- [19] 전해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울:민서출판, 2004
- [20] 전해린, 이 모든 괴로움을 또 다시, 서울:민서출판, 2004
- [21] 이덕희, 전해린, 서울:이마고, 2003
- [22] 장덕순외, 한국문학사의 쟁점, 서울:집문당, 1986

[23] 임형택, 한국문학사의 시각, 서울:창작과 비평사, 1984

[24] N.프라이/임철규역, 비평의 해부, 서울:한길사, 1982

2. 학위논문

[25] 박명희, 허수아비 수기(稻草人手記), 계명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26] 이해영, 三毛小說選譯,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27] 이명지, 전해린 수필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28] 안태진, 다중지능 이론의 관점에서 본 전해린의 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29] 장정자,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전해린의 자아의식 연구-수필, 편지, 일지 분석을 중심으로, 계명대 여성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30] 조옥정, 전해린 수필 연구, 한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감사의 글

2015 년 초가을로 들어서던 즈음입니다. 스스로가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오랫동안 갈망하던 문학에 관련된 석사 연구생 입학에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기꺼이 입학을 허락해 주신 우상렬 지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도 교수님의 학문 연구에 임하는 자세와 일관성 있는 성실함을 바라보면서 그 뒤를 3년간 따라왔습니다. 무엇보다 사유의 폭을 깊고 넓게 만들어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제게는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더불어 학문 연구의 나아가 할 방향을 보여 주시고 격려해 주신 비교문학 전공의 많은 교수님들께도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스승들께서 자양분을 나누어 주시고 적절한 채찍질과 넘치는 격려를 해 주심으로 부족한 저의 문학 세계와 삶에 많은 진보가 있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터라 비교문학 전공의 7 명 입학 동기들은 제가 가르치던 제자들 또래였습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외국인인 저를 기꺼이 학우로 받아주었고 모르는 부분을 친절하게 나누어준 것에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수업하는 것조차 부담이 되었겠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고 친절한 동무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반장 최민 군의 끊임없는 도움과 격려에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를 통해 중국 학생의 책임감과 친절한 우정에 대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석사과정 1 학기에 소논문을 쓰면서 비교문학 연구대상으로 만난 중국 작가 三毛와 한국의 전혜린 작가는 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두 나라의 천재 문인이 가지고 있던 노마디즘의 동질성 연구는 정말 놀랍고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이 두 인물은 3 년간의 제 석사 연구생 과정 가운데 내내 큰 거울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투른 접근으로 연구를 시작했던 그 가을은 그녀들과의 함께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특히, 자의식을 붙들고 현실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녀들을 문학 작품을 통해 만나면서 그저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가슴저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졸업을 앞두고 미비했던 그 공감의 시간에 다시 뛰어들어 왔습니다. 그녀들 족적의 향기를 다시 누리는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 문학과 삶의 토대가 되었던 독일 뮌헨의 슈바빙과 스페인 마드리드의 평범한 작은 골목을 걷고 싶은 마음도 간절해졌습니다. 이 논문을 쓰면서 이미 60~70 년 전에 두 선배가 걸었던 아프면서도 아름다웠던 문학의 길을 따듯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다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두 딸이 늘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연로하신 어머니, 그 분의 딸을 위한 기도는 끝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던 저력이었습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 행복한 학문의 길을 즐겁게 노래 부르며 걸어 올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신 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졸업은 단단한 알을 깨고 나가는 또 하나의 시작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팔을 걷고 흠어졌던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면서 기나긴 문학 그리고 그것에 관한 연구의 길을 기쁘고 감사하게 걸어가볼까 합니다. 연구생 기간동안 연변대학에서 정말 행복하고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A (석사과정 발표한 논문)

- [1] 김미란, 삼모와 전해린의 생애와 작품속 노마디즘의 동질성 연구, 제 11 회 연구생 학술세미나 논문집, 중국:연변대학 조선-한국학학원, p.p160~169, 2015.12.13.
- [2] 김미란, 월병과 송편에 관한 담론 , 중국조선족 추석, 중국:연변교육출판사, p.p173~190, 2016.12
- [3] 김미란, 과도기 역사속 민초들에 관한 담론 , 중국:연변문학, 연변인민출판사, p.p173~183, 2017.3